

# 전국 병원불자연합회 발족

## 회장 김주호씨...매월 운영회의 정례화 "의료봉사단 구성...오지 무료진료 추진"

전국 병원불자연합회가 창립됐다. 국립서울정신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의료원, 경희의료원 한일병원 등 병원불자회 회장단 및 임원 10명은 지난달 25일 서울 쌍문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전국병원불자연합회'를 발족시켰다.

이날 참석자들은 초대 연합회 회장으로 김주호(국립서울정신병원불자회 회장)씨, 부회장으로 김정숙(국립경찰병원불자회 수석부회장)씨, 총무로 권혁운(경희의료원 불자회 총무)씨를 각각 선임하고, 매달 셋째주 금요일 각 병원불자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병원불자연합회 운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10월 초 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으로 의료봉사단을 구성해 의료봉사에 나서는 한편 부산 동아대병원 불자회를 주축으로 한 부산지부 결성 등 지방조직을 완성하고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를 통해 체계적인 실행활동과 환자포교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의료봉사는 격오지 무료 순회 진료를 실시해 불우이웃에게 인술을 베푼다는 점에서 부처님 자비사상의 실천이라는 포

교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별 병원 법회를 통해 10월 22일 일일 예정인 직장지는 연합대법회를 회원들에게 알려 동참을 유도하고 1년에 2~3차례 전국의 병원 불자회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법회도 가질 예정이다.

권혁운 연합회 신임 총무는 "올해 초 연합회준비위를 결성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했으나 3부제 근무를 하는 병원 특성상 모

임을 갖기 힘들어 그동안 미뤄져 왔다"며 "연합회 창립을 계기로 성지순례, 수계법회를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키우고 병원 불자회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불법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병원불자회 창립은 그동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인 공무원연합불자회 창립을 가속화시키고 아직까지 연합회가 창립되지 않은 직장지는 실행단체들의 연합회 창립 논의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한일병원 반야회는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병행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nia.com)



◇ 지난달 10월 5개 병원불자회 회장단 및 임원들이 한 음식점에서 모여 전국병원불자연합회를 발족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 "자비인술로 환자포교"

김주호 초대 회장



"막중한 책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병원불자회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5일 국립의료원 등 개별 병원불자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병원불자연합회 준비위원회로부터 초대 병원불자연합회로 선임된 김주호(국립서울정신병원불자회 회장)씨는 "어떻게 연합불자회를 만든 만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를 통해 체계적인 실행활동을 하고 환자포교에도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회장은 또 "병원불자연합대법회, 성지순례, 수계법회를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키우고 의료봉사단을 구성해 격오지 순회 무료진료를 실시, 부처님 발족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회원들에게 자신이 불자라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회장은 병원불자회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 병원불자회와 교류를 통해 지부를 결성하는 등 연합회 조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조 능 연 <구미 무을중학교 교장>

10여 년 전 김천에서 제일벽지 학교인 2중학교 근무 할 때이다. 지금도 가정 결혼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당시도 장기간을 하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자신은 더욱 망가져 가는 학생이 의외로 많았다. 이 학생들을 위하여 담임선생님들은 아침부터 전화를 불렀고 씨름하다 시간을 내어 가정 방문을 하곤 했다.

2중학교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다니는 학생이 전교생의 40%가 넘었다. 그러나 나는 이 학생들이 비록 공부는 못해도 아름다운 마음과 꿈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접하게 되었다. 이윽고 청암사(경북 김천 소재)에서 매주 토요일 하고 시 차를 교문 앞에 세워놓고 비구니 스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 함께 점심공양을 한 후 법회를 봉행하고 귀가시키다 는 것이었다. 즉 스님들이 사회 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시간을 내어 토요일

달마다 스님 한 점을 구하고 싶다고 했다. 이야기 도중에 일어서더니 가게 뒷방에서 그림 한 점을 찾아와 가져가라고 흔쾌히 내어준다. 그리고 자기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단주, 염주, 부처님 그림을 내어놓고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했다. 그는 평소 화랑에 불교용품 사 두었다가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 점씩 나누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화랑에 들릴 때마다 최홍주씨의 실천 행을 보고 이것이 생활 불교의 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 "불교 생활화 하는 참불자 되자"

일 오후 학생들과 같이 청암사에 가보기로 했다. 평소 학교에서는 책도 못 읽는 학생이 많았을 때, 난 반 세상에 은 듯 넉넉한 마음과 모습이 되었다. 그렇게 그 학생들의 모습이 대단해 보이는 때가 이전이나 이후나 한 번도 없었다. 학교에서 전부였을 정도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전부였을 정도로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공부위주였다. 그러나 공부는 꼭 하고싶고 필요하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법회가 끝난 후 그 학생을 불러 얘기를 하다가 절실히 느꼈다. 칭찬을 한 후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으니 중 기계 운전사가 되어 혼자 계산 할 머니게 돈을 많이 벌어서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 소망이 꼭 이루어 지기를 나는 간절히 빌었다.

부처가 따로 있던가. 그 학생이, 그 화랑주가 부처인 것을 왜 진작 알지 못했던가. 그 후 다른 학교로 전근이 되어 학생들과 더불어 다니던 법회도 못하게 되었다. 얼마 뒤 김천 직지사서 열린 교사불자수련법회에 참석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지금의 직지사 교사 불자회를 조직했다. 회원 수는 갈수록 늘어 초 중 고 교사 100여 명이 넘는데, 그야말로 법이 없어 도 살 정도로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교사들이다. 중생들을 위해 무엇이 할 수 있구나 하는 신념을 얻고, 매달 법회와 청소년 포교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화랑방학이란 자비학교, 청소년 수련회 지도 교사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으나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나날이 정착되어 가고 발전되어 가고 있어 가슴 뿌듯하다.

부처님의 세계에서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고, 불자의 길로 들어서게 한 청암사 지영 스님과 여러 스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부처님께 두 손 모아 기도 드린다. 어느 날 이야기를 나누다가

## 우리 모임에선

### 대한중석석불회 삼천배 정진

대한중석석불회 석불회(회장 임갑수)는 7월23일 청도 죽림사에서 삼천배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정진법회에는 20여명의 회원들이 동참해 신심을 다졌다.

### 성동구청 불자회 정기법회

성동구청불자회(회장 박현수)는 7월25일 관내 미타사 정수암에서 정기법회를 가졌다. 불자회 지도법사 상덕(옥수복지관 관장) 스님이 법문한 이번 법회에는 2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신심을 키웠다.

### 부처님아름 하계수련

나우누리 부처님아름(대표이사 최희원)은 오는 8월 5, 6일 서울 도선사에서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2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수련회는 조석예불, 108배, 참선, 불교퀴즈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6·25 희생장병 6만명 위령제

BBS 통신원불자회 화천서...8백명 수계도

택시·버스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로 구성된 BBS 교통통신원 불자회가 직장직능 실행단체로는 드물게 군포교에 나서 화제다. BBS 교통통신원 불자회(회장 이상희)는 지난달 23일 서울 정례사, 부산불교보현회와 공동으로 강원도 화천 승리부대 신병교육대에서 호국위령제 및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영도 삼원사 주지, 도현 정혜사 주지, 도성 태종사 주지스님과 승리부대 부대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했다.



◇ BBS 교통통신원 불자회와 육군 승리부대 장병들은 지난달 23일 신병교육대 강단에서 호국위령제를 봉행하고 순국장병들의 명복을 빌었다.

지고 '복한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했다. 이상희 회장은 "정기적으로 군부대를 방문하는 등 군포교에

■ 목탁소리 (<http://www.freechal.com/goComm.asp?url=moktaksoori>)-7월6일 개설. 안으로는 불교학습을 통해 불교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하고, 밖으로는 불교 포교에 힘쓰고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학생들이 모여 만든 목탁소리의 홈페이지.

■ 청년불교우리사랑 부산, 경상 지역모임 (<http://www.freechal.com/goComm.asp?url=okcity>)-7월8일 개설. 세이클럽내 '청년불교우리사랑'(이하 청불방으로 통칭) 동호회 회원 중 부산, 경상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들의 모임.

■ 반야동문회 (<http://www.freechal.com/goComm.asp?url=prayana>)-7월19일 개설. 경북의대불교학생회 반야회 졸업생으로 구성된 청년 의사, 간호사의 모임.

■ 바라밀 동아리 (<http://cafe.daum.net/baramilfrom1999>)-6월17일 개설. 원주 북원 여자고등학교 바라밀동아리 동문들의 모임.

■ 성불회&해연회 (<http://cafe.daum.net/younghwasal>)-6월18일 개설. 성동기공 불교

학생회 성불회 해연(해성)불교학생회 연합 홈페이지.

■ 밝은보석 (<http://cafe.daum.net/bomyung>)-6월19일 개설. 신림동 보명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홈페이지.

■ 화염 포돌이 포순이 (<http://cafe.daum.net/podorusun>)-7월3일 개설. 중앙경찰학교 법우회 화염포순이 단기출가 후 개설된 홈페이지.

\*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ang@buddhania.com

#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1980년대에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특한 오가피가 불용금속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속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 延年不老 仙藥也 (연년 불로 선경약)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나스'는 만방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방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학박사)

■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원형(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성분의 성분이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낸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형(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탈락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 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작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의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꽤돼 물리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라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 ▶ 매달되는 증상에 (○) 마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위력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땀이 많이 나고 끈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 위로 울렁거린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것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활력순환이 인체의 것 같다
  - 16 목이 배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땀이 많이 나고 끈적하다
  - 18 말초나 감성으로 고통을 당한다